

## “한국당, ‘5·18 현안’ 입장 밝히고 광주 기념식 참석해야”

망언 징계·진상조사위원 재추천 외면 ... 광주시민 ‘부글부글’  
“이념갈등 촉발시켜 보수 결집 노리는 것 아니냐” 의혹 눈초리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 징계 및 5·18 진상조사위원 재추천 등을 외면하고 빈손으로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전망이다. 광주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려면 당내 징계 및 조사위원 재추천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는 등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 문제를) 빨리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회 상황이 쉽지 않아 의총을 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번 주 상황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파스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국회가 올스톱되면서 의총을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기에 의총을 열어 이 의원 제명 처분에 대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고 해도 제명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굳이 다시 논란에 불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당적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는데, 당내 의원(114명)의 3분의 2인 76명이 이 의원 제명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다 이 의원 제명안이 부결되면 한국당은 다시 ‘제 식구 잡싸기’라는 거센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종명 의원은 지난 2월 8일 한국당이 국회

에서 개최한 5·18공청회에서 김진태-김순례 의원과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나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사실상 5·18 진상조사위원 재추천이 어렵다는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보다 국회 공전에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가 사실상 ‘빈 손’으로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전망이다. 태극기 부대 등 일부 극우단체는 17일과 18일에 총창로와 금남로, 망월동에서 ‘5·18 평화 집회’를 예고해 광주시민과의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다.

당장, 5·18단체와 광주시민사회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지 말 것을 ‘최종 통보’했다. 황교안 대표의 방문이 5·18의 가치와 정신을 기리기보다는 욕보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이용섭 광주 시장은 이날 극우세력의 집회에 무관심·무대응으로 대응, 성숙한 광주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가 5·18 기념식을 매개로 지역 및 이념갈등을 촉발시켜 보수 세력의 결집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려면 당내 징계 및 조사위원 재추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5·18 정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는 등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5·18에 대한 한국당 지도부의 태도는 ‘무책임’ 그 자체”라며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미래를 논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 국방부 “전두환 ‘5·18 사살명령’ 진상조사위서 확인될 것”

국방부는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발포 직전 광주를 방문해 시민들에 대한 ‘사살명령’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는 증언과 관련해 앞으로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사실 여부가 확인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증언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그때 관련되는 내용이 확인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을 지원하는 테스크포스(TF)를 작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작년 9월 출범해야 했지만, 아직

위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출범식도 못하고 있다.

앞서 주한미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 씨는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 정오께 K57(제1전투비행단) 비행장에 와서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보안대장 등 74명이 회의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며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사살명령이었다고 생각된다. 당시 회의에서 사살명령이 전달됐다고 하는 것이 제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증언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5·18 39주년 옛 전남도청 본관 공개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14일 옛 전남도청 본관이 일반에 공개됐다. 8월 18일까지 개방되는 이 공간에서는 80년 5·18을 가슴-선-결의 서사로 그려낸 ‘열흘간의 나비떼’ 등 전시된 콘텐츠 등을 둘러 볼 수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차질 없이 준비”

조영택 조직위 사무총장, 경기장 시설공사 5월 중 완료

조영택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14일 대회 개막을 2개월 앞두고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회 시설과 운영은 당초 계획에서 큰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현재 마무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중국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영과 다이빙 종목이 열리는 남부대 시립국제 수영장은

## 광주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들어선다

정부, 전국 5개 새로 허용

정부가 소비와 관광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5개를 새로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보달청에서 이호승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

##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내 이름을 부탁해

사회통합형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의 첫걸음인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의 이름을 지어 주세요.

## 공모 개요

응모일정 : 2019년 4월 1일(월) 9:00 ~ 5월 31일(금) 18:00까지  
응모자격 : 누구나(1인 1점 제출)  
응모방법 : 광주광역시 공식 홈페이지 접수(www.gwangju.go.kr)  
※ 홈페이지 - 시정소식 - 기타소식 - 팝업게시판(자동차공장 합작법인 명칭 공모)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 200만원, 우수상 1명 50만원, 광주사랑상 20명 10만원  
※ 당선인이 광주광역시민인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  
문의사항 :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과 김동환 062-613-4854  
※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사랑과 감사의 65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창사67주년  
**광주일보**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 내 이름을 부탁해

사회통합형 노사상생 광주형 일자리의 첫걸음인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의 이름을 지어 주세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사업**

사업기간 : 2018년~2021년  
위 치 :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일원(19만평 규모)  
투자규모 : 약 7,000억원  
사업내용 : 민간기업과 공동출자로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 광주광역시, 현대자동차(주), 지역기업, 투자자 등이 주주로 참여하는 독립 신설법인

생산차종 : 경SUV 신규차종  
생산규모 : 10만대 생산라인 구축  
고용인원 : 정규직 1,000여명



대한민국 노사상생시대를 이끄는 견인차  
“광주형 일자리”